

‘잔혹동시’보다 더 잔혹한 현실

아동의 ‘표현의 자유’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잔혹동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어린이가 그런 시를 쓸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이다. 이런 놀라움은 ‘어린이는 이리이러해야한다’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전제한다. 특정한 어린이만이 어린이일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일 뿐, 사실이 아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어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는 발명된 것이지 처음부터 존재했던 무엇이 아니다. 서양에서 어린이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생명체’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괴물’이 어린이였다. 어린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상숙이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가 바뀌고, 상숙을 통해 사유재산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 사실에서 명쾌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상식들은 근대적인 산물이다. 비록 전통의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역사적인 맥락을 따져보면 생소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라는 말은 ‘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자각은 근대적인 것의 핵심사상이다. 이런 사상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상 동등하다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여기에 서도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극단은 방임주의이고,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이들조차도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에 대한 경계심을 버리지 못한다.

‘잔혹동시’라는 규정 역시 방임주의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잔혹동시’ 논란에 숨어 있다. 어린이는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어른과 똑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속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어린이가

“
‘잔혹동시’라는 규정 역시 방임주의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잔혹동시’ 논란에 숨어 있다

그런 시를 썼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어른이 그런 시를 출판하도록 방조했다’는 생각까지 속내의 표현은 다양했다. 그러나 이 분열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이중적 태도, 더 나아가서 어린이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상일 뿐이다.

어린이가 그런 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거나, 그런 시를 동시라고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은 어린이에게 절대적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딜레마는 더욱 깊어진다. 이런 생각에 찬동한다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에

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며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논리가 옳다면 표현의 자유는 자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잔혹동시’ 논란은 이처럼 단순히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샤를리 에브로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옹호되었던 표현의 자유는 ‘잔혹동시’ 논란에서 자취를 감춘다. 장동민의 성희롱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모든 발언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런 도전에 맞서 우리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어

떻게 갖춰질 수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공론을 통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고 절대적 믿음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황급히 그것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가 되는 시집을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되풀이하면서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거나,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어서 모든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공론을 대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야말로 ‘잔혹동시’보다도 더 잔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정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10살 어린이가 썼다는 ‘잔혹동시’라기보다, 이렇게 공론을 회피하고 위기상황을 초래한 문제를 재빨리 덮어버리려는 시도이다. 원인을 짚어서 해결책을 도모하기보다, 내 아이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사건의 당사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특정한 규범만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을 낳기 때문이다. 배제의 논리가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인류의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정상적인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과거에 정상적이지 않던 것들이 후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르듯이 정상성을 결정하는 규범도 시대마다 다른 것이다. 가치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야말로 특정 사안에 대한 불균부당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미덕이 아닐까.

《전습록》, 마음의 공부와 실천하는 삶을 전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㉟

홍승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란 특정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學習)을 의미한다. 옛 한자어 ‘工夫(공부)’는 관련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혹은 능력이나 조예(造詣)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그 공부의 대상이 나의 ‘마음’이라면, 시시각각 자극에 반응하는 주관적 마음의 움직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의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바깥에 그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양명학의 창시자이자 명나라 사상계의 거장 왕수인(王守仁, 1472~1528)에게 ‘공부’란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지식의 탐구나 실용적 지식을 넘어서 ‘삶’ 자



‘마음 곧 이치’라는 명제는 이치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체에 대한 성찰이다. 『전습록』은 바로 왕수인(왕양명)의 어록과 서신을 후대에 편집한 책이다. ‘전습’이란 공자의 『논어』에 나온 ‘경전을 익혔는가?(傳不習乎)’에서 따온 말로, 경전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익힌다는 뜻이다. 『전

습록』은 ‘좋은 삶’, ‘훌륭한 삶’을 위해 내 말바닥의 순수한 본심을 발현하는 수양공부에 관한 대화록이자 양명학의 교과서이다.

전근대의 중국은 물론, 조선왕조 500년간 독보적 지위를 차지했던 주자학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통해 그 사상의 체계를 이론 학문이 양명학이다.

『전습록』에는 인간의 본심과 도덕실천의 방법, 배움과 삶의 관계 등에서 주자학의 관점과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성이 곧 이치’(性即理)라는 주자학의 확고부동한 명제에 맞서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라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마음’이란 물질 혹은 몸과 대비되는 이원화된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마음 곧 이치’라는 명제는 이치가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 사물들의 이치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이

곧 그 사물 혹은 사태를 의미한다. 내 마음이 부모를 대하는 데 닿아 있다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마음이 닿는 하나의 사태이자 대상이 된다. 그러한 사태 속에서 내 마음의 올바른을 드러내는 과정이 곧 격물(格物)이다. 나와 사물(대상), ‘안과 밖’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그 사태 혹은 대상으로부터 곧바로 내 마음의 올바른을 얻는 실천을 의미한다.

“마음 바깥에서 어떤 이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앎과 행동하는 것이 둘로 나뉘는 까닭이다. 어떤 이치를 나의 마음속에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문(聖門)에 들어서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가르침이다.”(『전습록』)

주자학이 안과 밖을 독립된 것으로 보고 밖의 이치를 추구하여 안의 마음을 완전하게 보충하려 했던 것에 비해, 양명학은 안과 밖은 결국 하나의 것으로, 내면적 마음의 수양을 학문의 중점에 두었다.

이გი적 욕망으로부터 나의 순수

한 마음을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실천이 곧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습록』은 말하고 있다.

“앎(知)은 실천(行)의 목적이며, 실천은 앎의 수행이다. 앎은 실천의 시작이며, 실천은 앎의 완성이다.” 앎과 실천은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양명은 이 마음을 ‘양지(良知)’라고 불렀다. ‘양지’는 곧 ‘양심(良心)’이며, 사람에게 누구나 선천적(선협적)으로 내재한 순수한 본심이다. 이러한 본심이 대상으로부터 촉발되는 왜곡이나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는 ‘양능(良能)’이라고 불렀다.

왕양명은 전사(戰士)였다. 실제로 수백 번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전사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과 인간 본심을 치열하게 성찰했던 ‘사상적’ 전사이기도 했다. 그에게 앎(지식)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을 의미하며, 동시에 마음의 올바른을 드러내는 과정이 곧 삶의 공부였다.